

EU, 에너지 · IT 투자로 경기부양

잉여예산 50억유로 집중투입 ... 가스대란이 에너지 투자 계기로

EU(유럽연합)이 침체에 빠진 역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에너지와 IT분야에 투자를 집중할 방침이다.

EU 집행위원회는 1월28일 잉여예산 50억유로를 2010년 말까지 역내 경기부양에 사용할 것을 제안하면서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 IT 인프라 확충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누엘 바로수 집행위원장은 “2008년 12월 이사회에서 채택된 EU 경기부양책은 장기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기적 부양책”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발생한 EU 가스대란에서 교훈을 얻어 에너지 분야에 대규모 투자하고, 지방에 <정보 고속도로>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에너지 및 IT투자 강화책을 토대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 근해 풍력발전, 가스 및 전기 네트워크 확충 등에 35억유로를 투자하고 지방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확충하는데 10억유로, 그리고 지역개발 프로젝트에 5억유로를 투입할 것을 제안했다.

집행위원회는 유럽의회와 이사의 승인을 얻어 입법화 과정을 거친 뒤 잉여예산 투자를 시행할 전망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1/29>